

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제' 참 좋은데...잠 잘 곳 없어 걸돈다

민간보다 비용 낮고 출·퇴근 관리 등 부담 줄어 '일석이조' 숙소 인프라 부족에 올해 392명 뿐...전체 인력의 2% 수준 지자체 예산난에 기숙사 건립 난항...국비 등 지원 확대를

전남 농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할 기숙사가 부족해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생활 지원 및 인권 교육, 근무 기록부 관리,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직접 관리하도록 해 노동 착취·열악한 숙소·인권 침해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민간 인력보다 하루 일손 비용이 낮고 숙소·출퇴근·식사 등 관리 부담도 농가에 거의 지우지 않아 '땀먹고 알먹는' 인력 활용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데도, 각 시·군, 농협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숙소가 없어 공공형 계절근로자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도입돼 올해까지 73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배정됐다. 이는 전남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농가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2023년 4697명, 2024년 9966명, 총 1만5005명으로 늘고 있다. 반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원은 지난 2023년 71명, 2024년 267명, 2025년 392명 등에 그쳤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활용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숙소 부족'이 첫 손에 꼽히고 있다. 전남도 내 마련된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4곳에 불과하며, 수용 인원은 14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비롯해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지은 기숙사다. 전남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은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담양(수용인원 35명), 무안(48명) 두 곳이며, 시·군에서 자체 재원을 통해 지은 곳은 함평 월야면(24명), 손불면(36명)에 두 곳이다. 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남(92명)과 영암(55명)에도 오는 8월까지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지어질 예정이며, 장성에서도 군 자체 재원으로 50명 규모 기숙사를 세울 계획이다. 기존 숙소나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만든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2곳이며, 각각 담양(2명), 강진(20명)에 있다. 또 고흥(55명), 장흥(16명), 함평(48명), 영암(20명) 등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지어질 기숙사 수용 인원을 전부 합치더라도 491명에 그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그나마 만들어진 농업근로자 기숙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의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지난 2월 준공돼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4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단 1명의 계절근로자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무안 기숙사 또한 총원 48명을 채우지 못하고 40명만 이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서는 예산 문제가 신규 기숙사 건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축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권익위의 2인 1실 권고, 민원에 따른 부지 변경 및 매입비 증가 등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신속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농번기마다 벌어지는 '일손 대란',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임시·기존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신규 기숙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역에 숙소가 있어야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확충된다면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집단 관리에 유리하고 농가에서도 더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국비와 도비 지원이 지극히 미미(국비 35억, 도비 10억)해 인력 유치를 위한 필수기반시설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지자체 재정 부담에 막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기숙사 건립이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고용 정책의 핵심인 만큼 국비 확보와 함께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수해민 힘 내세요 21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신안교회에서 열린 수해 피해 주민 위로 삼계탕 나눔 행사에서 구청 복지정책과 직원, 읍소원 등 봉사자들이 주민과 복구활동 봉사원들에게 삼계탕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폭염에 소나기...광주·전남 '도깨비 날씨'

당분간 낮 최고 35도·열대야

극한 호우가 몰려나고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광주·전남 곳곳에서 반박 소나기가 내리는 등 '도깨비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2일 아침최저기온은 22~26도, 낮최고기온은 30~34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23일은 아침 최저기온 23~25도, 낮최고기온 31~35도로 예보됐다. 또 기상청은 당분간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소나기도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내륙 지역에 5~6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나타나고 습도가 높아 무덥겠다. 한편 기상청은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완도에는 폭염경보, 흑산도·홍도를 제외한 광주와 전남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확대 발표했다. 이날 일 최고 체감온도는 무안 해제 35.5도, 완도 35.1도, 해남 땅골 34.9도, 광주 조선대와 곡성 34.6도, 신안 흑산도 34.5도, 영암 시중 34.4도를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 있어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김건희 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소환 통보

김건희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건희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약 3주 만인 21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첫 소환 통보를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전했다.

김씨의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도 건주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군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군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그는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특검팀은 이들 의혹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개입 여부를 비롯해 관련 정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악취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조종사 실수'로 단정하려 해"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사조위 조사 자료 전면 공개 요구

민간 항공 조종사 대표 단체인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제주항공 사고기 엔진 조사 결과와 관련,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블랙박스 기록을 포함한 사고 조사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조위는 사고의 복잡성과 전체 시스템 실패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원인인 '조종사의 실수'라는 단일 요소로 단정 지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지난 1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엔진 정밀조사 결과 자체 결함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양쪽 엔진에 조류가 충돌했지만, 조종사가 더 크게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껐다는 것이 사조위 발표 내용이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사조위에 비행자료기록장치

(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포함한 전체 사고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조사가 유가족 단체가 지정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한편 조사의 전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또 국토부에 대해 "진행 중인 전국 공항의 구조물 및 위험 요소 제거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CVR 기록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최종 조사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금도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